

# 강진군, 사의재 주변 관광 활성화 '총력'

## 한옥체험관·저잣거리 등 활용 방안 모색 역사·문화·미래 관광 공존 관광거점 구축

강진군이 사의재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의재와 한옥체험관, 저잣거리 등을 연계해 효과적인 개발로 역사와 문화, 미래관광이 공존하는 관광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진군은 29일 "2009년 사의재 중심으로 주막 식당, 초정, 연못 조성 등 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2018년 사의재 한옥체험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숙박동 증축·편의

시설(카페 청)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옥체험관은 5개 동 9실로 최대 3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강진군에서 지역영하고 있다. 사의재 한옥체험관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직영보다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이 미래까지 홍보와 숙박객 등 관광객 유입이 훨씬 원활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 6월 위탁회사를 모집했다. 현재 2차 협상을 마치고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사의재 명소화를 실현하는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조성된 사의재 저잣거리는 정문(청주루)을 비롯해 판매점, 체험관 등 임대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 6동이 운영되고 있다. 저잣거리에는 현재 총 4동이 입점해 있으며 아직 입점하지 않은 2동은 입찰공고를 통해 입점자를 선정하고 사의재, 한옥체험관 등 주변시설과 연계하는 활

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사의재 주변에 시간여행자의 집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지면적 680㎡를 확보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 중이며 사의재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저잣거리 인근에 위치한 사의재 주차장은 1천여㎡로 관광버스,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사의재 일대에는 총 5곳의 주차장이 있어 관광객을 위한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 사의재 편시설(카페 청) 건너편 주차장에는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으나 현재 시설이전을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 중이며 9월 중 시설을 이전해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와 강진군이 주최하는 2022년 제8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가 오는 10월28일부터 3일 간 사의재 일대에서 개최된다. 문화축제 공연행사, 가족참여형 한옥 체

험행사, 한옥 관련 기획 전시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며 편의시설 설치 등 실외부스 운영으로 다수의 주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옥박람회를 통해 각종 SNS 온·오프라인 홍보로 강진에 대한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고 행사 규모가 전국적인 만큼 강진군의 대표 관광지인 사의재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정영록기자



**참깨터는 소리, 땅끝해남에 가을 성큼** 늦여름 땅끝해남의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추석을 앞두고 농가의 앞마당마다 '쇠아쇠아' 참깨 터는 소리가 퍼져 나간다. 해남군 현산면 향교마을 용정진 이르신(93)은 참깨를 거두며 "참기를 써서 명절도 쇠고, 애들도 한병씩 돌려 보내야제"라고 미소지었다. <해남군 제공>

## 함평군,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함평군이 코로나19 재확산 극복을 위해 추석 전 제3차 군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29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32억여원을 투입해 전 군민에게 1인 당 10만원 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8월 1일 기준 함평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지급 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9주 간이다.

재난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형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9월 1-2일 이틀 간은 마을 별 직접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함평=김연수기자

## '나주사랑상품권' 연말까지 10% 할인

나주시는 29일 "오는 9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 '나주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이자 올해 제2차 추경에 시 예산 40억원을 확보하는 등 상품권 10% 할인 판매 한도액을 당초 646억원에서 857억원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상품권 10% 할인을 중단 없이 연장한다.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 소비 심

리 위축으로 우려했던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들의 고민을 씻는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서 1월부터 5월까지 477억원 규모 상품권 판매까지 10% 할인을 적용했으며 재정 여건과 다가올 추석 연휴를 고려해 6월부터 이달 말까지 할인율을 5%로 하향 조정했다. 9월1일부터 10월 중순까지 10% 할인을 재개할 방침이었으나 지속되는 코로

나19 상황, 물가 상승 여파로 침체된 상품권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10% 할인을 연장하기로 했다. 나주사랑상품권은 지류·카드 상품권으로 발행되며 개인 별 월 구매·충전 한도액은 50만원이다. 지류 상품권은 농·축·원협 등 금융기관 57개소에서, 카드 상품권은 농협,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9월1일부터는 관내 광주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카드 발급이 이뤄진다. 카드 금액 충전은 지역상품권 전용 앱 'chak'에서 하면 된다. /나주=정종환기자

## 목포 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 업무정지 2개월

### 보증수리 등급강등 6개월 등 '숨방망이' 처분 논란

3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가 드러나 물의를 빚은 목포지역 내 A정비업체가 최근 현대자동차 블루핸즈와 관련해서도 업무정지 2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처분은 '숨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 3월14일, 3월28일자) 29일 현대자동차 등에 따르면 A업체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협력 업체를 운영 중인 가운데 목포시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과 관련해 보증수리 업무정지 2개월과 보증수리 등급강등(최저등급)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정지 등 처분일은 지난 1일부터다. 이같은 처분은 A업체에서 불법 임대를 운영했던 B씨가 현대자동차 감사실에 A업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목포시의 행정처분 사실을 제보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현대자동차의 업무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A업체에서 불법 임대를 운영했고 분사에 이를 위반한 사실을 제보한 C씨는 "블루핸즈 가맹계약서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인가해지에 해당하는데 이번 업무정지 2개월 처분 등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전 블루핸즈 가맹계약해지했던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공정한 처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이번 목포시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과징금 300만원 처분은 숨방망이식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탄원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시는 지난 5월3일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1항2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들어 A업체에게 과징금 300만원을 처분했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예정처분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27일 실시한 자동차관리법위반처분 청문에서 '사업정지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문당사자와 사업장 근무 직원 및 관련 업체가 입게 될 불이익과 일반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과징금 처분을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여 과징금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 정지)와 같은 법 제74조(과징금의 부과)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C씨는 "목포시의 행정처분과 같이 불법을 일삼는 업체를 과징금 처분에 그친다면 관내 모든 정비업체들이 과징금 정도는 감수하면서 불법 임대를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불법 행위가 성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 신안군-해남 대흥사, 무심사 복원 박차

### 통일신라-고려시대 해상불교문화 거점

신안군이 해남 대흥사와 함께 무심사(사진) 복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안군은 29일 "최근 전남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해남 대흥사 법상 주지스님, 해남 미황사 향문 주지스님, 해남 일지암 법강 주지스님 등이 무심사 복원 업무추진을 위해 신안군을 방문해 박영호 부군수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신안 흑산 진리 무심사지 삼층석탑과 석등'은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무심사가 존재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유적이다. 1999년 목포대학교 발굴조사 유물로 '무심사선원' 명문기와편이 발견됨에 따라 통일신라시대 선종 계통의 사찰

이 존재가 밝혀졌다. 무심사 창건 시기는 9세기 통일신라 말로 추정되며 2017년 전남문화재연구소가 편낸 '신안 흑산도 무심사지 I·II'편과 2021년 발굴을 추진한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도 장보고 활동시기와 해상교역 활성화를 근거로 9세기 초중반에 건립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위치는 흑산 진리마을과 상리산성 사이다. 사지 옆은 과거 흑산도를 관할했던 흑산진 관사터가 있어 흑산도에 머물렀던 관원과 선원들은 불공을 드리며 하루의 안녕과 출항을 기원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승려들이 무심사에 머물렀다가 중국 유학길에 오르고



진리향을 오가는 국제 무역 선단에 실린 최신의 불교서적과 유물을 접했다. 이처럼 찬란하게 꽃피웠을 전남도 천년 불교의 산실 무심사 복원을 위해 신안군은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무를 맡은 해남 대흥사와 함께 무심사 인법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호 부군수는 "해남 대흥사와 적극 협력해 무심사 복원에 힘쓰겠다"며 "신안군에 찬란하게 꽃피웠을 천년불교의 위상이 무심사 복원을 통해 재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www.kjdaily.com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